



# 군종주보

2023년 11월 26일(제1168호)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상시 주일)

발행 : 군종교구 봉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우리외 함께 계신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아들의 날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아들의 날엔 모든 민족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이 두 부류가 듣게 되는 이야기는 서로 정반대입니다. 오른쪽에 분류된 양은 창조 때부터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게 되지만, 왼쪽의 염소는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하느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는 이처럼 이분법적인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느님 나라를 위한 결단이 필요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느님 나라를 위해 선 어중간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투신해야 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눈 기준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입니다.

양쪽으로 나뉜 사람들은 각각 ‘언제 그렇게 했느냐?’ 또는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당신을 위해 한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작은 이들은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을 전부 돕기란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작은 이들을 위해 힘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사회적 높고 낮음에 관계 없이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 충실히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오승수(미키엘) 신부  
비행(육군 제25보병사단) 상당 주일

제 1 독 시

예제 34,11-12.15-17

회 답 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2 독 시

1코린 15,20-26.28

복음 관 호 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 음

마태 25,31-46

영 성 제 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 열 번째 시집

그 학생들 중 김 (사도) 요한이라는 학생은 잔재주가 많고 성격이 불안정합니다. 일찍 바로잡아 주지 아니하면, 버림받을 위험이 있어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또 학생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참된 인간성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정당하게 평가할 줄도 모르며, 오로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세속적이며 외적인 영화와 부귀공명에서 찾을 줄만 압니다.

우리 포교지의 상태는 신자들 중에서 신분의 계급 차이로 서로 질시하고 적대시하므로 분열이 일어나서 큰 걱정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신덕(信德)과 형제애가 부족하고, 계속되는 논쟁과 암투와 증오로 신자 공동체가 와해되고 비건설적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 폐단을 시정할 무슨 대책은 없지요? 그대로 내버려두었다가는 우리 포교지에 큰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사부님의 편지에 보면, 장수 신부님 편에 상분과 십자고상과 성패 등을 보낸다고 쓰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여간 다음 기회를 기다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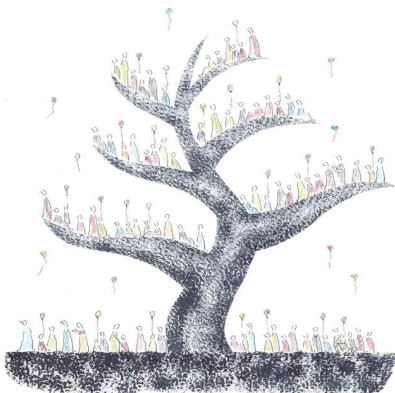
우리가 분노의 그릇이 되지 말고 하느님 자비의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나뵙게 될 하느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도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적어도 하느님 아버지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도록, 저와 가련한 조선 신자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공경하올 스승님께, 지극히 미약한 종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발췌, 청주교구 양업교회시연구소

|   |   |   |   |
|---|---|---|---|
| 복 | 음 | 목 | 상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생명나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그 옛날 누군가  
꿈꿨던 세상,  
그 나라를 꿈꿉니다.

함께 모여  
커다란 생명의 나무를  
만드는 상상을 합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겐트 제단화



안반 아이크  
(1390년~1441년)  
1432년 제작  
니무 위 유화  
350x461cm  
상바보(St. Bavo)  
대성당  
벨기에 겐트



그리스도왕 모습

겐트 제단화는 12개의 패널로 이루어진 매우 복잡한 제단화로, 열려 있을 때와 닫혀 있을 때 각기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다. 오늘 주목할 부분은 상단 중앙에 있는 그리스도왕 부분으로, 왕좌에 앉아계신 예수님(혹은 하느님)의 왼쪽(우리가 보기에)에는 성모님이, 오른쪽에는 세례자 요한이 그려져 있다.

학자들은 사제의 의복을 입고 있는 중앙의 인물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일체를 한 인물로 그려낸 모습이며, 이는 이분이 쓰고 계신 세계의 총으로 된 왕관으로 알 수 있다고도 한다. 이분은 각종 귀한 보석과 상징물, 글귀로 장식된 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 계시며, 한 손을 들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주고 계신다. 붉은색 옷 가장자리에는 요한 계시록의 글귀인 ‘왕 중의 왕’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그림 전체를 아울러 왕 중의 왕이신 이분에게 천상의 모든 피조물과 성인들, 살아있는 모든 이들과 망자 모두가 그분께 마땅한 예를 올리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계속되겠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그리스도왕 대축일: 전미대 장대헌 신부

◆ 교구장 동정

- 총무(제39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11월 26일(주일)

- 제27회 가톨릭 미술상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때·곳: 11월 28일(화) 16:00, 군중교구청

“신교의 열매, 세례성사!” - “아버지와 이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마태 28,19)